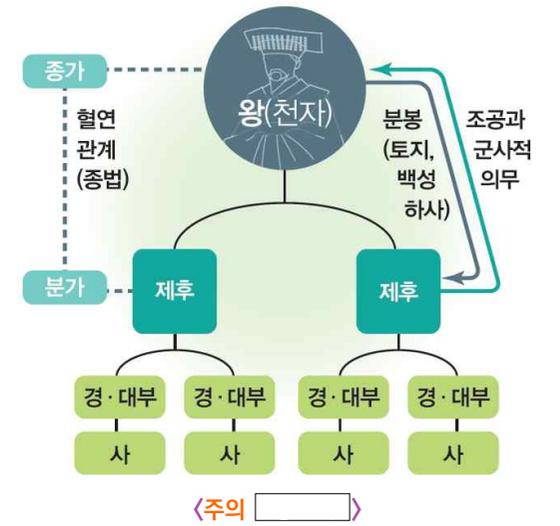


01 고대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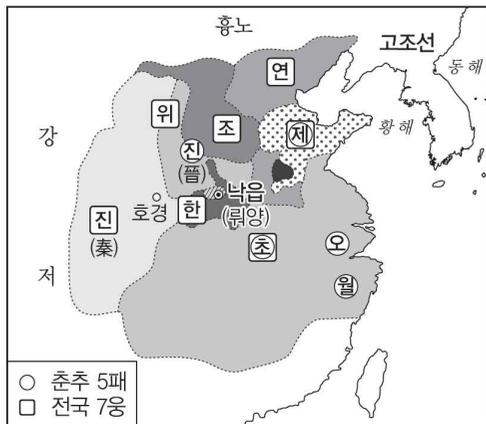
중국 문명

하(夏) 왕조	• 문헌상의 왕조 , 청동기 사용, 얼리터우 유적	
상(商) 왕조	성립	• 기원전 16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등장
	정치	• 제정일치 , 왕의 점술가인 정인(貞人) 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국가의 일을 결정(신권 정치) → []에 기록
주(周) 왕조	특징	• [] 유적, 태음력 사용, 순장 의 풍습, 청동으로 된 무기와 제사 도구(청동 솥) 제작, 돌과 나무로 농기구 제작
	발전	• 기원전 1046년경 상을 멸망시키고 []에 도움, 황허강 유역 지배 →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 확대
	정치	• [](왕(직할지 통치), 왕족과 공신(제후로 삼아 봉토를 분배하여 다스리게 함, 공납·군사적 의무)) []의 무왕은 죽은 주왕(紂王)의 아들에게 상나라의 옛 도움 땅을 주었다. 그리고 그를 감시하기 위해 자기 동생들을 주변에 머물게 하였다. 또 [] 왕실의 친족들을 제후로 삼아 연, 노, 제라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 무왕의 뒤를 이은 왕들도 친족들을 여러 곳에 보내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였다.
	경제	• [](토지 9등분(여덟 농가가 나누어 경작하고 그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경작) → 수확물을 조세로 납부)
특징	• 종법 (직계 적장자 상속, 혈연관계) 중시, [] 강조, 덕치주의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춘추 전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추 시대[기원전 770년 주의 <input type="text"/> 천도, 존왕양이·계절준망, 회맹의 패자, 5패], 전국 시대[기원전 403년, 악육강식·하극상, 합종연횡, 7웅] • <input type="text"/> 농기구 사용, 우경 시작, 인구 증가와 상업 발달, 도전·포전 등 금속 화폐 유통, 토지 사유화 진전 • <input type="text"/>를 통한 지방 통제 강화, 유가·법가·도가·묵가 등 <input type="text"/> 등장, 개방적 풍조와 능력 중시, 기원전 359년 진(秦) <input type="text"/>의 변법
진(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text"/> [군현제, 분서갱유, 승상 이사 등용, 몽염의 흉노 정벌, 만리장성 축조, 광둥·북부 베트남 진출, 도량형 통일, 반량전, 소전체로 문자 통일] • 아방궁(선양), 병마용갱(兵馬俑坑), 진승·오광의 난[기원전 209, 장초(張楚) 개창]으로 멸망(기원전 206)
한(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한[고조(유방)·<input type="text"/>(유철)] ⇨ 신[왕망(안한공)] ⇨ 후한[광무제(유수), <input type="text"/>(도읍)], 적미의 난(신의 멸망), <input type="text"/>의 난(후한의 멸망) • 고조(<input type="text"/>, 한신 참살), <input type="text"/> (군현제, 장건·월지 파견, 위청·곽거병의 흉노 정벌, 염·철의 전매, 교수법·평준법, 중농역상, 오수전 독점 주도) • 향거리선제(현량방정과), 호족의 성장, 유교의 국교화(무제, 동중서, 태학, 훈고학), <input type="text"/> (태사공서, 사마천, 기전체), <input type="text"/> 개량(후한 채윤), 불교 전래
위·진·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오, 진(晉, 사마염, 265~316) → 동진(사마예, 317~420), 북위 <input type="text"/> (한화정책, 균전제, 삼장제), <input type="text"/>와 문벌귀족 성장 • 석굴 사원(원강·릉면), 현학·청담 사상(죽림칠현), 도교 발달, 『귀거래사』(도연명), <input type="text"/> (굽타 왕조 기행)·불도징·구마라습 등 승려, 『여사잠도』(고개지)
수(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운하 광통거, <input type="text"/>(587)), 양제(운하 통제거·<input type="text"/>(__~린칭)·한구·강남하(양저우~__)) 등 <input type="text"/> 완성(610), 고구려 원정 실패(612~614)]
당(唐, 618~9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text"/> (이세민, 현무문의 변, 재위 626~649) - 정관의 치(3성 6부,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input type="text"/> 정복(텡그리 칸 등극, 630) • 고종(이치, 재위 649~683) - <input type="text"/> 완성(훈고학 집대성, 공영달, 653), 서돌궐 정복(657), 신라 지원(백제·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패배 • 현종(재위 712~756), 개원의 치 → 천보의 쇠(환관 고령사, 양귀비·양국충), <input type="text"/> 전투(751) 패배, <input type="text"/>의 난(755) → 장원제·<input type="text"/>·<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설치(광저우, 해상 무역 감독, 714), 2년 3작의 화북 지방 보급, 차(茶) 재배, 행(상업 조합), 비전(약속 어음) • 국제적·귀족적 문화, <input type="text"/> (주작대로), 조로아스터교(배화교)·마니교·<input type="text"/> (네스토리우스교)·이슬람교(칭진사) 등 외래종교 수용, 현장(『대당서역기』)·의정, 대안담, 이백·두보 등 시문학 발달, 당삼채·마노 잔 • 도호부(630~)와 기미 정책, <input type="text"/> 설치(710), <input type="text"/>의 난(875~884), 절도사 <input type="text"/>의 난으로 멸망 ⇨ 5대 10국 시대 전개(907~979)



공자(孔子)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을 알고는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겠다고 탄식하였으니, 그것은 지나치게 기교를 부리는 당대의 세태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주가 망하고 진(秦)이 일어나자 전적으로 군주만을 높이 받들게 되었고 한이 이를 답습하였으므로 덕 있는 신하를 벗으로 대하는 의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위(魏)의 은 귀족의 신분이 금석처럼 고정되어 있어 재주와 덕망이 있는 인재가 자취를 감추거나 등용될 수 없었고, 수에 이르러서는 과거가 새로 생겨나 당까지 그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03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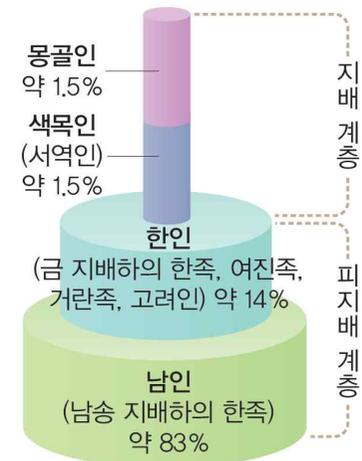
<p>북송 (960~1126) ↓ 남송 (1127~12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광윤(태조, [] 도읍, 재위 960~976) → 황제권 강화 정책([], 재상 권한 축소, [] 정례화, 병권 장악과 금군 강화) • []의 맹약(진종, 1004), []의 신법(세폐 부담, 신종(1069), 부국강병 추구([]·지역법·모역법, 보갑법·보마법),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 • 정강의 변(흠종, 북송 멸망, by 금) ⇨ 남송 건국(고종(조구), 악비의 도움, [](항저우) 도움), 금과 화의(군신 관계, 세폐, 1142), 쿠빌라이 칸에 멸망 • 지주전호제 확산, 참파벼 도입(벼의 2기작), 용골차 등 수차 보급, 창장강 하류(최대 곡창 지대), 교자·회자(지폐), 행·작, 석탄 사용 보편화, 제철·도자기 등 수공업 발달, 도시 발달([](카이펑, 장택단), 『동경몽화록』(맹원로)), 시박사 확대([] 등), 일본(헤이안 시대·가마쿠라 막부) 등에 [] 수출 • 국수적·서민적 문화, 잡극(인형극) 등 공연 성행, 통속 문학 유행, 화약·나침반·인쇄술, 성리학(남송, 주희, 『사서집주』), 『자치통감』(사마광)
<p>요(거란), 서하, 금(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916~1125) : 야율아보기, []·[], 연운 16주 지배(936), 전연의 맹(송과 형제 관계, 세폐, 1004), 거란 문자, 북송·금 연합에 멸망 • 서하(1032~1227) : 탕쿠트족, 이원호, 칭제건원(1038), 북송과 군신 관계 체결(1044), 비단길 장악(동서 무역으로 번성), 서하 문자 • 금(1115~1234) : 아구다, []·주현제, 상경회령부·[](연경)·카이펑 도읍, 한문 서적을 여진 문자로 번역, 오고타이 칸(재위 1229~1241)에 멸망
<p>몽골 ⇨ 원 (1206~1271~13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무친(쿠릴타이, 칭기즈 칸, [], 호라즘·서하 정복), 오고타이 칸(바투의 원정, 주치 울루스), 몽케 칸([] 왕조 정복, 홀라구 울루스 수립) • [](재위 1260~1294, 국호 대원, [] 천도, 남송 정복과 중국 전역 지배, 역참 정비, 몽골 제일주의 정책, 가마쿠라 막부 원정) • 중국식 통치 제도 채용, [](서역인, 이란·위구르인) 중용, 파스파(몽골) 문자, 백련교도 중심의 []의 난(1251~)으로 멸망 • [](지폐), 목화 재배의 전국 확대(면직업 발달), 시박사(항저우·취안저우), 대운하 정비(항저우~대도), 강남 지방의 조세 부담 과중 • 카르피니 교황 사절단 입국(1246), 마르코 폴로 체류(1274~1291), 랍반 사우마의 유럽 순방(1287~1288), 이븐 바투타 입국(1344) • 국제적·서민적 문화, [](티베트 불교) 신봉(국교화), [] 편찬(곽수경), [](서상기·비파기 등) 성행



▲ 거란(요)과 송(북송)의 영역



▲ 금과 남송의 영역



▲ 원대 신분 구조

04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p>명 (明, 1368~16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 [주원장, [] 도읍, 재위 1392~1398, 승상 호유용의 모반과 [] (승상) 폐지, 6부의 황제 총괄, [] 반포, 한족 문화 부흥 추진 (호복·변발 금지), [] 편제(농촌 재건), 어린도책·부역황책, 해금 정책, 성리학 관학화] • 성조 [] [주체, 정난의 변, 재위 1402~1424, [] 건설과 [] 천도, 내각 대학사 설치, []의 향해 시작(1405), 몽골 원정·베트남 북부 점령, 운하 정비] • 신종 만력제[재위 1572~1620, 북로남왜의 화로 인해 재정난 가중, 내각 수부 대학사 []의 개혁(1572~1582)으로 [] 실시[조세 항목 단일화(지세·정세), 은으로 징수, 1573~1581] • [] (~무로마치 막부), 양명학, 실학(『본초강목』·『<u> </u>』·『농정전서』 등), [] [1582년 입국, 『기하원본』(~서광계), 곤여만국전도 제작] • [] 반란군의 베이징 점령으로 멸망(의종 승정제, 1644)
<p>후금 ⇨ 청 (1616~1636~19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조 고향제[누르하치, 천명제, 재위 1616~1626, [], 후금 건국] • 태종 문황제[홍타이지, 재위 1626~1636~1643, 국호 '청'·칭제건원(1636), 조선 침략(1627·1636)] • 세조 순치제[재위 1643~1661, [] 입성(1644), 중국 전역 지배] • 성조 [] [재위 1661~1722, 삼번의 난 진압, 타이완의 반청 세력 진압, [] 조약 체결(~러시아, 1689), 지정은제의 토대 마련, 천고일제] • 세종 옹정제[재위 1722~1735, [] 설치, 비밀 상주문 제도, 카흐타 조약, 『고금도서집성』·『대의각미록』 간행] • 고종 [] [재위 1735~1795, 몽골·신장·티베트 등 정복으로 최대 영토 확보, [] 첫 벌 완성(1782), 영국의 매카트니 사절단 입국(1793)] • 18세기 말 백련교의 난(1796) 발생, 팔기제의 한계 노출 등 → 세력 약화 <p>• 한족[군현제, 직접 지배], 번부[몽골·티베트·신장 등, [] 지배]</p> <p>• 한족 강경책[]과 호복 강요, 만한통혼 금지, 문자의 옥 등]</p> <p>• 한족 회유책[] 정책, 『강희자전』·[] 등 대규모 편찬 사업에 한족 지식인 참여([]의 발전에 기여, 사상 통제의 수단)</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문연각(文淵閣)은 곧 책을 보관하는 곳이다. 앞에는 벽돌로 네모난 연못을 만들어 돌다리를 만들었다. 안에는 어제비(御製碑)가 있었다. 살펴보니 “송, 금, 원이 소장한 서적을 합한 것이 무릇 수만 권이고, 여기에 『영락대전』을 보태니 서적이 이미 대단히 많았다. 건륭제 때에 책을 더 구하고 정리하여 []를 만들어 저장하였다. …… 절강(浙江) 지역에는 힘써 배우고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가 많으니 이 책을 널리 펴는 것이 마땅하다. 관리로 하여금 []를 다시 베껴 셋으로 나누어 양주(揚州), 항주(杭州) 등지에 보관하게 하여 선비들이 나아가 직접 보게 한다.”라고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담 샬([], 1645)·카스틸리오네(서양화 기법 전달), 전례 문제(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 1715), 크리스토포 금교령(옹정제, 1723) • 고증학, 공양학, 서민 문화 발달([]·『유림외사』, 경극 성행) • 쌀 생산(창장강 상류·쓰촨 분지), []로 교역 제한(1757)과 [] 무역(1760), []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은으로 징수, 1712~1730]
<p>명·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사(지배층, 향촌 사회, 치안유지·조세 징수, 요역 면제·면책 특권), 서민의 지위 향상(노변·향조 운동·직용의 변), <성세자생도>(청, 쑤저우) • 매뉴팩처(창장강 하류, 쑤저우·징더전), 옥수수·감자 등 외래 작물 재배, 상품 작물(창장강 하류), 공소·회관, 산시 상인·휘저우 상인의 활약 • 이슬람 상인의 활동 및 서양 상인의 진출로 교역망 확대, 비단·차·도자기 수출, 일본과 아메리카산 은의 대량 유입 ↳ 은으로 세금 납부[명의 [], 청의 []]

05 개항과 근대화 운동	
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무역(17~18C) ⇒ 삼각무역(19C) ⇒ 제1차 아편 전쟁(1840~1842) ⇒ [] 조약[5개 항구 개방, [] 할양, 공행 폐지, 협정 관세 등, 1842] • 선교사 피살(프)·애로호 사건(영) ⇒ 제2차 아편 전쟁(1856~1860) ⇒ [] 조약[10개 항구 추가 개방,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 설치, 크리스티교 선교의 자유, 1858]·[] 조약[텐진 조약 비준,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영국에 주룽반도 할양, 텐진 개항, 1860] 체결
[] 운동 (1851~1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상제회 조직(1843), [], 대동사상과 평등사상, 반외세, [] 수립([](1853)), [] 제도(토지 균분·남녀평등), 아편 엄금, 남녀평등, 전족 금지 등 반봉건 개혁 표방 • [] 운동은 남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남중국에는 비밀 결사들, 종족 분쟁, 지방 토착인들과 독특한 방언과 관습이 있었으며 특히 외국인의 광저우 거주 허가에 대한 저항감과 함께 아편 중독이 만연하였다. …… 불만을 품은 남중국의 사람들을 동원한 종교 지도자는 과거 시험에 실패한 []이었다. …… 그는 추종자들에게도 이상과 조상의 사당을 파괴하고, 아편과 술을 끊고 전족을 그만두라고 가르쳤다. …… 그는 왕조에 반대하는 반란의 깃발을 들었고 자신을 태평천국의 천왕으로 선포하였다. 억압자를 물리치겠다는 군사적 신념에 고무된 []군은 용감한 전사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비밀 결사의 회원들을 포함한 다른 불만자들도 []군이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세력에 합류하였고, 그들이 도시를 점령함에 따라 많은 양의 정부 무기와 현금이 그들의 수중에 들어왔다. • 단련, 향용 신사, 상승군(양창대 기반, 1862)의 진압
[] 운동 (1861~18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홍장·중국변 등 향용 신사, [], 동치중흥(동치제, 1861~1874), 금릉기국 설치(1865) • 칭프 전쟁(1884~1885), 청일 전쟁(1894~1895)의 패배([] 조약)로 한계 노출
[] 운동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술변법, []와 량치차오(『변법통의』), 공양학자, 양무운동 실패와 청일 전쟁 패배에 대한 반성, 제도국 설립 건의, 광서제의 지원(명정국시조) • 메이지 유신 모방, 입헌군주제 표방,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주장 • 서태후 등 보수파 관료의 반발([])로 실패(100일 변법)
[] 운동 (1899~19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계통 비밀 결사에서 시작, [], 산둥 봉기 ⇒ 텐진 입성 ⇒ 베이징 입성 • 선교사 살해, 교회와 철도 파괴, 베이징의 외국 공관 습격, 열강의 침략을 견제하려는 서태후 등 보수파의 후원 • 8개국 연합(영·독·러·일·미 등의 베이징 점령(1900), [] 조약 체결[외국 군대의 [] 주둔 인정, = 베이징 의정서, 1901]
광서 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서제(재위 1875~1908), 서태후 등 보수 세력의 개혁 필요성 절감, 입헌파 주도, 신군 창설, 과거제 폐지(1905), [] 반포(1908)
[] (1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쑨원(1866~1925) 주도, []의 활동(도교, 1905),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 주장, 청 왕조 타도와 [] 표방 • 지금 중국은 천 년에 이르는 전제 정치의 독이 풀리지 않고 만주족이 나라를 파괴하며 외국이 침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 민권주의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뿌리 깊은 폐단이 있어 민생주의를 시행하기 어려우나, 중국은 그 병폐가 심각하지 않아 이를 제거하고 민생주의를 시행하기 어렵지 않다. …… 무릇 한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정신을 가진 소수의 사람은 그 사회의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 최적의 정치 제도를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세계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각자의 천직이며 내가 『민보』를 창간한 목적이다. • 민간 철도 국유화 조치 ⇒ 보로 운동 ⇒ 쓰촨 봉기 ⇒ 우창 [] 봉기(11월) • [] 수립([], 쑨원 임시대총통 추대, 1912. 1월) ⇒ 청 멸망(위안스카이, 1912. 2월) ⇒ []의 중화민국 임시대총통 취임(1912. 3월) • []의 초대 총통 취임과 [] 운동(황제 체제 복귀 시도, 1913~1915) ⇒ 위안스카이 사후(1916) [] 시대 전개

<p>06 민족 운동</p>	
<p>운동(1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두슈·후스·루쉰 등, 유교 비판, 서구식 합리주의·민주주의·과학주의 등 표방, 백화 운동, 『신청년(新青年)』 간행(1916)
<p>대중국 21개조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 산둥반도 공격 → 산둥성에 대한 []의 이권 요구 → 위안스카이의 수용(1915)
<p>운동(19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9~1920)에서 중국 베이징 정부의 외교 실패('대중국 21개조 요구'와 산둥반도 이권에 대한 [] 권리 승인) • 베이징 대학생 중심, 반봉건·반제국주의 운동, 베이징 정부의 [] 조약 조인 거부(1919. 6월) <p>마침 5월 9일은 중국이 '21개조 요구'를 수락한 국치일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배일(排日)행사가 열렸고 베이징 정부의 엄중한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기세는 상하이, 화베이, 창장강 연안, 화난에서 남만주 일부까지 확대되었다. 6월 3일에는 상하이에서 일대 민중 대회가 열렸으며, 그 대회에서 전국적인 파업과 철시를 제창하여 학생 단체의 구국 운동에 공명 동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6월 7일의 국민 대회에서 [] 조약의 조인을 거부할 것, '21개조 요구' 및 산둥 연장선 계약을 취소할 것, 매국노 사형을 정부에 요구할 것, 국민 대회 및 구국단을 조직하여 국화(國貨)를 유지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p>
<p>(1924~19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민당 창당(쑨원, 1919) → 중국 공산당 창당(천두슈·리다자오, 1921) → 제1차 국공 합작(공산당원의 국민당 입당, 군벌 타도, 1924) → 쑨원 사망(1925) → 장제스의 [] 개시([], 1926) → 난징·상하이 점령(1927) → 상하이 반공 쿠데타(4·12 사변)와 제1차 국공 합작 결렬(1927) → 난징 국민 정부 수립(1928) → 베이징 점령 → []·[]의 완성(1928) <p>계획된 북벌을 단행하기 전인 1925년에 쑨원이 사망한 뒤 중국 국민당은 좌파와 우파 지도자 사이에 계승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권을 장악한 []을/를 군사령관으로 하여 []이 개시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가는 길마다 농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군대의 전진을 도왔다. 1926년 말쯤 국민당 정부는 근거지를 광저우에서 우한으로 옮겼고 우한에서는 당의 좌파가 우세를 점하였다.</p>
<p>(1934~19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에트 정부 수립(1931) → 국민당의 [] 토벌 작전 재개(1933) → 중국 공산당 홍군의 대대적인 이동(루이진 → 옌안)
<p>일본의 침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타오후 사건(1931. 9월) → 일본 관동군의 출병과 [](1931) 발발 → [] 수립(수상 푸이, 1932) • 중국 공산당의 8·1 선언(내전 중단과 항일 공동 투쟁 표방, 1935) → [] 사건(장쉐량·양후청 등이 주도하여 [] 감금, 화청지, 1936. 12월) • 루거우차오 사건(1937. 7월 7일) → [] 전쟁 발발 → 제2차 국·공 합작(일치 항일 전선, 1937~1944) <p>일본군은 실종 병사 수색을 위해 중국군 주둔 지역 진입을 요구했으나 중국 측은 거절하였다. 실종 병사는 이미 부대에 귀환한 상태였지만, 일본군은 이곳을 포격했다. 사건 발생 이후 중국과 일본 양측은 잠시 교섭을 진행해, 일단 현지 군대 사이에 정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 내각은 중국 화북 지역에 대한 파병을 결정했다. 일본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여 신속하게 베이징, 텐진을 점령했다. …… 중국 공산당은 곧 전국에 “전 중국 동포, 정부, 군대가 단결하여 민족 통일 전선의 견고한 장성을 축성하여 일본 강도의 침략에 저항하자.”라고 호소했다.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 또한 루산 담화에서 “이번 전쟁에서는 남과 북의 구별이 없고 노인과 어린이의 구분이 없으니, 맞서 싸워 조국을 지킬 책임이 있는 우리는 모두 희생을 결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p>

07 공산화와 변화	
중국의 공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칭 평화 협정(1945) ⇒ 국공 내전[국민당(장제스) ⇔ 공산당(마오쩌둥), 1946~1949] ⇒ 공산당 승리, []의 수립(1949. 10월) • 토지 개혁과 산업의 국유화, 개인의 이윤 추구 금지, 제1차 5개년 계획(사회주의 경제 개혁, 1953~1957)
[] (1958~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이념 분쟁 시작(⇔ 흐루쇼프, 1956) ⇒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 ⇒ 사회주의 경제 개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 경제 부흥 모색 • [] 설립(협동농장 강화, 1958), 재래식 용광로(토법고로) 건설, [] 실각(⇔ 류사오치, 1959)
[] (1966~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실패 이후 마오쩌둥 노선 비판 ⇒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 장칭(1914~1991)의 《해서파관(海瑞罢官)》 비판(1965) • 마오쩌둥·장칭, 조반유리(造反有理), [](1966~1968)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수많은 노동자·농민·병사들, 혁명적 지식인과 혁명적 간부는 []의 주력군이였다. 본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던 혁명적 청소년([])이 용감한 돌격 장수가 되었다. 그들은 기백과 지혜가 있었다. 그들은 대자보를 붙이거나 공개 논쟁의 형식을 통해 드러난 부르주아 계급의 대표 인물들뿐만 아니라, 은폐된 인물들까지도 강력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며 단호한 공격을 펼쳤다. 거대한 혁명 운동이었던 []의 과정에서 이들은 이런저런 결점을 피할 수 없었지만, 큰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척결 과제[낡은 사상(舊思想), 낡은 문화(舊文化), 낡은 풍속(舊風俗), 낡은 관습(舊習慣)] → 중국의 전통 가치와 부르주아 이념 공격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그는 ‘반역에는 이유가 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 따위의 모호하지만 자극적인 슬로건으로 젊은이들을 독려했다. 또한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습관 등을 타파하기 위해 싸울 때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인명의 살상과 제도의 몰락이였다. 아이들이 부모를 배신하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젊은 []들에게 공격을 당하였다. 심지어 공격의 불길은 전통문화의 파괴로 이어져 고서적이 불태워지고 공자의 무덤이 파괴되었다.</p>
자유 진영과의 관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합 가입(1971), [] 회담(닉슨~마오쩌둥, 1972. 2월)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저우언라이 수상과 닉슨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헨리 키신저 박사는 197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회담을 진행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려는 닉슨 대통령의 의향을 알고 있는 저우언라이 수상은 1972년 5월 이전의 적당한 날짜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제시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기꺼이 초청을 수락하였다.</p>
[]의 개혁과 중국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우언라이 사망(1976. 1월) ⇒ 텐안먼 사건(4월) ⇒ 마오쩌둥 사망(9월) ⇒ 화궈핑의 4인방 감금 • []의 권력 장악(1978)과 실용주의 노선[흑묘백묘론과 선부론(先富論), 4대 부문 현대화, 경제특구 설치(선전·주하이 등, 1979)] • 미·중 국교 정상화(덩샤오핑~카터, 경제 원조 획득, ____년) • 후야오방 사망(1989. 4월) ⇒ [](6월) ⇒ 장쩌민 주석 취임(1990) ⇒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1992) • 홍콩 반환(1997), 마카오 반환(1999),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2001), 베이징 하계 올림픽 개최(2008)